2008 박달동

박달동 지하성전은 더 완성된 교회를 갖기 위한 지난한 광야의 시기였다.

2010 6대 관할사제로 부임한 차준섭(미카엘)신부는 교우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고, 새성당 건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편마을 시대를 열었다.

▲ 2010. 차준섭 신부

▲ 2010. 차준섭 신부

▲ 2010. 차준섭 신부

▲ 2010 함윤숙(클라라) 안양교회 출신 4호 사제

▲ 2017 김학윤(다니엘) 안양교회 출신 5호 사제

▲ 2008. 비아메디아 4기
(최건숙, 이인희, 목진희, 이정옥)

순교자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아 안양교회를 위해 헌신한 조왕제(베드로)회장
성당 축성식을 앞두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.(2014)

▲ 조왕제(베드로) 회장과 강태진(클라라) 교우

▲ 조왕제(베드로)회장의 부친
조용호(디모데)사제

▲ 구세실 주교, 이도암 신부, 김태순 신부,
이요한 신부와 함께있는 조용호 신부

▶
1902년 6월 11일 제물포 항으로
떠나기 직전에 정동의 목사관 앞에서
말을 타고 있는 조부 조성규.
아펜젤러와 함께 성서번역회의를
가던 중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

▲ 고종을 찾아뵙기 위해 한국식 관복을 입은
아펜젤러와 함께한 조성규(왼쪽 두번째)